

등록번호	도시관리과-11073
등록일자	2015. 12. 10.
결재일자	2015. 12. 10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주무관	도시관리팀장	도시관리과장	환경도시국장
오선영	박상준	김영철	12/10 代송광덕
협 조			

이현 · 사대문역세권 전문가 지문화의 결과보고



서 대 문 구
도시관리과

아현·서대문역세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

서대문구 아현·서대문역세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

I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5년 12월 3일(목) 14시
- 장 소 : 서대문구청 제3회의실(6층)
- 참석자 : 금기용 연구위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,
류창수 교수(이화여대 건축학부), 박성연 교수(이화여대 경영학과),
손동욱 교수(홍익대 도시공학과), 이승훈 대표(Metaa 대표이사),
임업 교수(연세대 도시공학과), 주대관 서대문구 지역총괄계획가,
환경도시국장, 도시관리과장, 아현·서대문역세권 TF팀원 등

II 주요 회의내용

- 아현역세권의 새로운 비전과 기능 설정 필요
 - 북아현뉴타운 개발에 따른 대규모의 입주민이 들어오게 되는데, 이들이 실질적인 수요층으로 이들을 고려한 비전 설정 필요
 -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,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기능설정 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능 설정이 더 중요함
- 웨딩 및 가구 산업의 특화 가능성 검토
 - 현재 북아현의 웨딩 및 가구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화산업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 - 웨딩은 이미 홍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, 가구는 산업자체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어 북아현 지역의 경쟁력이 없음
 - 배후지에 북아현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린생활시설로 기

능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됨

- 웨딩과 가구산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, 다른 지역의 웨딩 및 가구산업과는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함. 가구 DIY, 중국인 타겟의 웨딩드레스 제작 등 운영방식, 상품의 내용, 마케팅방법 등의 특화방안을 찾아야 함

□ 북아현 웨딩타운의 새로운 입지 발굴

-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로 입지를 변경해야 함. 대로변은 사람이 찾는 걸고싶은 거리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음
- 예스에이피엠 건물에 웨딩관련업체를 이주시키는 방안 검토

□ 서대문역세권의 새로운 기능 발굴

- 전체적인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다양한 기능 도입 검토
- 도심 및 홍대, 신촌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기능 도입 검토
- 충정로 우체국 부지에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도입 검토
- 경기대길을 걸고싶은 길로 조성하고, 신촌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

□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방안 검토

- 시민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
- 주변 대학교의 도시, 건축 등 관련학과의 수업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

III 향후일정

- 2016년 상반기.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2차)
- 2016년 상반기. 주민-전문가 포럼 개최

붙임. 아현·서대문역세권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부. 끝.